

국내

광주일보 선정 2009년 국내·국제 10대뉴스

국제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폐렴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8월18일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고인이 남긴 민주화 및 남북화해 업적을 고려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3일 국장으로 치러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른바 '3김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23일 경남 김해 고항마을에 있는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 서 투신했다. 장례는 29일 경북공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후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진실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김연아 연속 우승과 신기록

'피겨퀸' 김연아가 올해 출전한 5개 국제 대회에서 여자 싱글 최고점을 잇따라 경신하며 모두 우승해 내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다. 김연아는 특히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선수로는 최초로 총점 200점대(208.71점)를 돌파했고, 지난 10월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총점 210.03점의 신기록을 세웠다.



세종시 백지화 논란

정운찬 국무총리가 9월 내정 직후 세종시의 비효율성을 들어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야권과 충청권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는 11월 세종시 수정을 공식화하고 대안 마련에 들어갔으나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이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신종플루 대규모 확산

지난 4월말 멕시코에서 집단 발생하기 시작한 신종인플루엔자A(H1N1)가 전세계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2일 멕시코에서 입국한 여성이 첫 감염자로 확인된 이래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이 이어지면서 의심, 또는 확진 환자가 12월6일 현재 28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30명에 육박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

지난 9월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특히 한국은 신흥국 중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영예를 안아 외교사적 쾌거는 물론 국격(國格) 제고의 기회로도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6명 목숨 앓아간 용산참사

1월20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의 4층 건물을 점거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으며 농성자 5명,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철거민 과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해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北, 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

북한이 4월5일 인공위성이라며 장거리로켓 '광명성 2호'를 발사하자 유엔은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으로 규정, 4월14일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안보리 의정명령을 채택했다. 북한은 5월25일, 두번째 핵실험을 강행하며 반발했지만 유엔은 6월13일 대북 무기금수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로 제재 수위를 높였다.

北, 김정은 후계자 내정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올해 1월 셋째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3대 권력 세습'에 착수했다.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은 그후 '100일 전투' 발기 등 업적 쌓기에 나섰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찬양가요인 '발걸음'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부녀자 연쇄살인' 강호순 사건

지난 1월24일 군포 여대생 피살사건의 용의자 강호순이 체포됐다. 강은 2006년 12월~2008년 12월 경기서남부 일대에서 실종된 부녀자 6명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2006년에는 강원 정선군에서 군청여직원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은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뒤 상고를 포기했다.

미국 첫 흑인 대통령 취임

버락 오바마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1월20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인종의 벽을 뛰어넘은 첫 흑인 대통령의 탄생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지만 수상 자격을 둘러싼 논란으로 빛이 바랬다.



코펜하겐 기후회의 개최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92개국, 1만5천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했다.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을 마련을 위해 열린 이 회의에서 국가간 의견이 충돌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구촌 휩쓴 신종플루

4월 멕시코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플루는 순식간에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확산하면서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 208개국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신종플루는 재택근무 등 일상생활을 바꿔놓았으며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관광산업은 피해를 봤다.



中 신장위구르 대규모 시위

7월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대규모 유희시위 사태가 벌어졌다. 유희 사태로 숨진 사람은 197명, 부상자는 1천 700여명에 달했다. 특히 10월 1일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한족과 위구르족 간의 민족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중국 지도부의 간담을 서늘게 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6월 25일, 황제의 갑작스런 죽음에 전 세계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컴백 공연을 불과 2주 앞두고 날아온 비보였다. 그의 죽음을 두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며 미국 LA 검시소는 잭슨의 사망을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마지막 공연 연습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디스 이즈 잇'은 개봉 5일 만에 1억1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아프간전쟁...美 병력 증파

미국은 빈 라덴을 잡기 위해 2001년 10월 아프간전쟁을 시작했지만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1일 아프간에 3만명을 추가 파병하고 2011년 7월 철군을 개시할 수 있다는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다. 오바마의 '도박'이 성공해 '제국의 무덤' 아프간에서 임무를 달성하고 예정대로 철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민주당 정권 교체

전후 54년간 지속돼 온 자민당 일당 지배 체제가 무너졌다. 하토야마 유키오가 이끄는 민주당은 8월 30일 총선에서 자민당을 대파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미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으며, 정치자금 문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도덕성에도 상처를 입었다.

EU 리스본 조약 발효

유럽연합의 '미니 헌법' 리스본 조약이 12월 1일 공식 발효됐다. 2001년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EU는 정치 통합의 닦을 올렸다.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EU가 정치, 안보 분야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게 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EU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조약 비준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노출됐다.

세계 경제회복 가속화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했지만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공조 노력으로 끝없이 하강하던 경기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 호주는 10월 G20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 '출구전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며 국제통화기금은 201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이란 대선과 반정부 시위

이란에서 6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6월12일 치러진 대선 개표결과 아마디네자드 현 대통령이 승리를 거뒀지만 무사비 전 총리를 주축으로 한 개혁파는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거리로 몰려나왔다. 이란 정부는 진압과정에서 30여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개혁파 진영은 70여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Advertisement for '아이엘러시아' (Eye Laser Asia) featuring eye car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홍스제이스 이태리가구' (Hong's Jeisee Itaeriga-gu)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